단오, 행복 기원 문화유산으로 발전

6월 18일, 세시풍속으로 여는 축원… "재해 없길"

통도사, 단오 용왕재 비롯해
각 사찰서 단오행사 펼쳐져
전통 의미 되살리는 행사에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주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음력 5월 5일 단오는 우리나라 명절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1년 가운데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불교계에서는 소금단지를 땅에 묻거나 전각에 올려두고 화재 방지를 기원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단오의 의미를 계승 발전해 안녕을 기원하고 나라의 번영과 호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단오절을 맞아 6월 18일 경내 금강계단 앞 구룡지 옆에서 단오용왕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매년 단오절마다 구룡지 옆에서 용왕단을 설단하고 소금단지를 도량 전각 기둥 모서리에 올린다. 아울러 참여 불자들에게 소금을 나눠주고 1년 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올해 통도사는 2만개의 소금봉투를 마련해 불자들에게 나눠 큰 호응을 받았다.



단오를 맞아 불교계가 소금을 묻고 화재방지를 기원하는 단오재를 열었다. 사진은 통도사 단오재에서 한 스님이 소금단지를 전각에 올리는 모습.

통도사가 나눈 소금봉투에는 대광명전 평방에 새겨진 문구 '오가유일객(吾家有一客) 정시해중인(定時海中人) 구탄천창수(口呑天漲水) 능살화정신(能殺火情神)'이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우리 집에 한 분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다 속에 사는 사람이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라는 뜻이다.

문구가 새겨져 있는 통도사 대광명전은 보물 제1827호로 1725년(영조 원년)에 축환대사가 중수했다. 이후 1756년 10월 21일 화재가 발생, 회진(灰塵)됐다가 1758년에 중건됐다. 그 이후 화재 없이 보존되고 있다.

여기서 불은 화재 및 사고 등 액운을 의미하며 소금은 용왕이 사는 바다를 상징해 액운을 막는 불보살의 가피를 상징한다. 통도사 단오 용왕재는 오랜 기간을 거쳐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주지 영배 스님은 "용왕님은 불보살의 화신으로 가피를 상징한다. 방장 성파 스님께서는 벼락이 쳐도 소금물인 바다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이처럼 불의 정신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오절을 맞아 지역민을 격려하고 호국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다.

부산 동래 전등사(주지 도문)는 6월 18일 단오절을 맞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단오절 행사와 동래읍성 충절용사 추모재를 봉행했다.

전등사는 단오절마다 지역민을 초청해 널뛰기, 그네뛰기, 단오부채 나누기, 단오 비음 등 전통 놀이 및 의식을 진행해 행복을 기원했다. 아울러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에서 순국한 호국영령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추모재도 봉행했다. 동래 전등사는 동래 읍성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충렬사를 동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지 도문 스님은 "단오절을 맞아 지역민의 행복을 기원할 뿐 아니라 전등사가 위치한 동래 읍성의 호국 역사를 돌아보고자 행사를 열게 됐다"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지키고 역사를 돌아보는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보종찰 해인사도 단오절에 소금 단지를 묻는 단오재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호국을 기원하는 의미를 더해 눈길을 끌었다.

해인사(주지 향적)는 6월 18일 매화산 남산제일봉에서 소금을 묻는 의식, 호국단오재를 봉행했다. 매화산 남산제일봉 화강암 바위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으로 양기를 상징한다. 해인사는 매년 재해 방지를 기원하고 액운을 막는 의미로 소금단지를 묻고 있다. 이날 해인사는 지역소방대,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청년회 등 300여 명이 모여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단오체육대회도 개최했다.

한편, 조계종에서는 지난해 8월 28일 "다비 · 가사 · 사찰 단오 행사 등 보존가치가 높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불교무형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사찰 및 단체가 보유한 불교무형문화유산이 불교를 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중요 의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혜동사 창건주 원력을 되새기며"

남원 혜동사, 고담혜동 스님 부도탑 제막



남원 혜동사(교임 선덕)가 창건주인 고담당 혜동화상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6월 16일 혜동 스님이 불사를 진행하던 남원암 극락전에서 봉행된 부도탑 제막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벽산문도회장 혜명 스님,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 금강승가회장 송월 스님, 윤평호 남원불교신도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스님들과 남원향교 유림 등 지역불자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입장한 가운데 진행된 제막식은 영산작법, 남원향교 유림들의 제향, 법어, 추도사, 추모노래, 탑돌이 등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법어에서 "혜동 스님은 생전에 중생교화의 사명감과 불법홍포의 원력으로 구법정진의 원력을 실천하셨다"며 "근본을 바로알고 하심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불법홍포의 대원력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남원암이 불법홍포의 터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불교의 대강백인 벽산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한 혜동 스님은 생전 원력을 세운 남원암의 불사 완공을 목전에 두고 지난 1월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佛都 부산 키우는 포교사단 열정

부산지역단 분야별 연수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

'포교가 곧 수행'이라 외치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천수천안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 이하 부산 포교사단)은 6월 1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부산지역단 분야별 연수를 개최하고 포교사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분야별 연수는 각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경 포교, 계층 포교, 자원봉사 분야 등 포교팀의 활동을 보고 · 발표하고 서로 독려하는 시간으로, 매년 연수를 통해 새로운 포교 활동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부산 포교사단은 △계층포교 △군경포교 △염불포교 △자원봉사 △지역봉사포교 △사찰문화해설포교 △NGO포교 등 7개 분야 내 38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 포교사단은 총 700여 명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어 포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연수에서 우수팀으로는 동부지역총괄 염불 연화팀, 서부지역총괄 자원봉사 진공묘유팀, 중부지역총괄 자원봉사 보현팀, 지역중앙총괄 군 지국천팀이 선정됐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6월 16일 범어사에서 부산지역단 분야별 연수를 개최했다.

사례발표에서 윤영란 진공묘유팀장은 "천마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인을 위해 법회와 모금활동, 자장 급식봉사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첫 만남의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도 이겨내고 아이들은 이제 포교사 엄마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라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행복한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염불 봉사를 담당하는 김건미 연화팀장은 "염불봉사는 임종 전 죽음을 편안히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대기조처럼 일상을 포교활동에 내어 두고 생활해야 하지만 전법활동에 긍지를 느낀다"고 발표했다.

지역단 연수는 △입재식 △인사말 △환영사 △격려사 △시상 △법문 △팀활동 사례 발표 및 토론 △총평 및 시상 △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분남 단장은 "포교 원력을 다지고 활동과 지계실천을 점검하며 포교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면 우리 사회는 멀지 않아 불국토가 건설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분야별 연수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 단장, 정분남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남구불교연합회 호국의 달 장병 격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장병을 격려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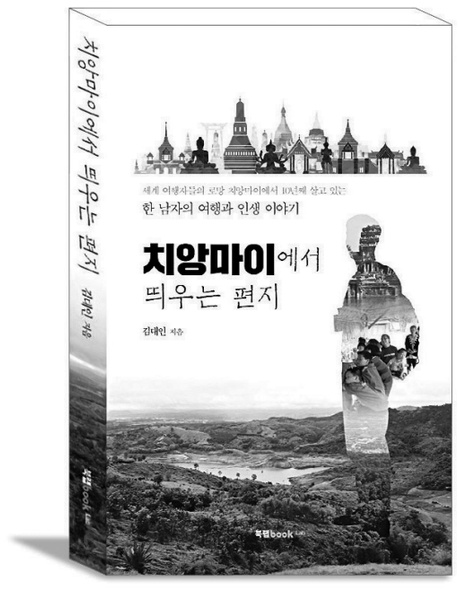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6월 17일 해군작전사령부 군법당 해운사를 방문해 위문법회를 봉행하고 위문금 300만원과 18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남구불교연합회는 매년 연말 일일찻집을 열어 후원 성금을 모금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위문법회에는 회장 지원 스님, 수석부회장 화랑 스님, 사무총장 화랑 스님, 감사 능후 스님 및 정안호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과 장병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법회를 통해 불자 장병들이 계정혜 삼학을 지키고 건전한 정신력과 건강한 체력으로 호국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